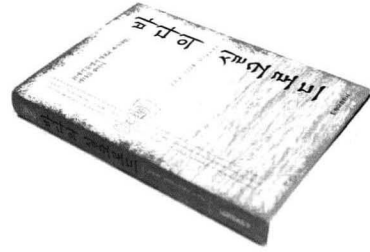


바닷길,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열정의 저. 작.



<출판저널> 기자들의 고유한 시각으로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바다의 실크로드》와 양승운 씨 등 9명의 필자가 선정됐다. 지난 2월부터 선정해 온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에 여러 명의 저자가 지은 책이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판저널> 9월호 '이달의 책 이달의 저자' 최종 선정회의는 8월 11일 있었다. 후보군을 이룬 10종의 책 중 최종 선정회의에 넘겨진 책은 강구정의 《나는 외과의사다》, 오생근의 《문학의 숲에서 느리게 걷기》, 백승종의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 유진보의 《돈황학이란 무엇인가》, 양승운 외 8명의 《바다의 실크로드》 등 5종이었다. 이들 책은 모두 현상에 대한 말초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학 인문 사회 학술의 진동을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강구정의 《나는 외과의사다》는 민음사가 주최한 '2003 올해의 논픽션상' 생활과 자연부문 수상작으로, 외과의사의 눈으로 본 의료계의 모순과 현실을 사실적으로 고백한 책이다. 의사인 저자의 각종 임상체험과 사색이 어우러져 의사에 대한, 혹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사 상像是 무엇인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저작으로 평가됐다. 백승종의 《대숲에 앉아 천명도를 그리네》는 16세기의 큰 선비로 불리는 하서 김인후의 삶과 사상을 독특한 서술 방식으로 되살려낸 책이다. 여기서의 독특한 서술방식이란 저자 백승종과 김인후의 대화체 전개를 말하는데, 16세기 인물의 미시적인 탐구에 가상 토론과 대화가 동원됨으로써 역사인물 복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오생근의 《문학의 숲에서 느리게 걷기》는 속도와 경박함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 소설과 시의 존재 자리를 탐구한 비평집으로, 한국문학의 한 지형도를 그려보였다는 데서 주목을 받았다. 깊고 두터운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문학적 결과물로 생산한 시인, 작가들에 대한 그의 비평태도는 진지하기 이를 데 없다. 전인초 씨가 역주한 《돈황학이란 무엇인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꼽히는 '돈황'의 학문적 의미를 탐색한 책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지역학의 중심으로 떠오른 돈황이 어떻게 고대 동서양의 교통 무역 문화교류의 요지로서 실크로드의 통로가 되었으며 돈황의 학문적 가치는 어떤 것인가를 면밀하게 추적함으로써 중국 고대문화사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 양승운 씨를 포함 9명의 저자가 쓴 《바다의 실크로드》는 21세기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왜 바닷길에서 찾아야 하는가를 전제로 바닷길을 통한 동서문화 교류, 현재의 해양도시와 바다 실크로드의 역사성 등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데서 보기 드문 저작으로 평가됐다. 해양강국을 지향하면서도 우리 출판계는 변변한 바다의 실크로드에 대한 책이 없는 실정이었으나 양승운 씨 외 8명의 작업은 문명과 바다, 해양도시와 실크로드의 역사성에 대한 일단의 복원을 일궈냈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들 저자들이 3년여 전부터 실크로드 복원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책의 기획방향을 함께 의논하고 심포지엄 등을 통해 콘텐츠의 질을 담보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했다.

<출판저널>은 위 다섯 종 중 《나는 외과의사다》와 《바다의 실크로드》를 최종 후보로 압축, 진지한 토론 끝에 《바다의 실크로드》를 9월호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다. 동서교류사의 밑동을 이루면서 육상 실크로드와 철의 실크로드를 잇는 바다의 실크로드에 어떤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는지,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